

현대로어에서 다진술복합문의 문장론적지위

장 원 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외국어교육의 내용을 잘 꾸리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하겠습니까. 외국어교육의 내용은 학생들에게 외국어지식을 풍부하게 줄 뿐아니라 그것을 원리적으로도 깊이있게 가르칠수 있도록 꾸려져야 합니다.》

현시기 로어교육의 내용을 잘 꾸리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로어복합문에서 새롭게 제기된 언어현상들에 대한 깊은 리해를 가지고 복합문리론을 완성하는것이다.

다진술복합문이란 3개이상의 진술단위들이 문장안에 존재하는 문장이다. 이 진술단위들은 필자의 지향에 따라 동일하지 않은 문장론적연결(각이한 결합을 이룬 병렬, 종속, 무접속사적결합)에 기초하여 성분화의 기본적인 면(진술단위와 기본준위)과 부차적인 면(연결수단)으로 배열되면서 융합된 문장이다.

로어다진술복합문은 진술단위들의 수에 따라 두진술복합문과 다진술복합문으로 나눈다.

로어다진술복합문에 대한 문장론적지위를 밝히기 위해서는 다진술복합문을 이루는 기본단위인 진술단위에 대한 개념을 바로 가지는것과 함께 다진술복합문의 구조상의 단위들이나 용량, 깊이, 성분화의 준위, 부분, 구성성분, 묶음문을 분석하는것이 필요하다.

진술단위란 양태—시간적측면을 표현하는 문법적수단들이 있고 일정한 논리적표식과 논리적관계를 나타내는 언어수단들이 있는 문장론적구성이다. 진술단위는 진술성범주가 있는것이 특징이다.

다진술복합문의 구조적단위로서의 용량은 그 문장구성안에 들어가는 진술단위들의 수량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진술단위들의 량만이 아니며 잠재적으로 가능하고 실현될수 있는 구조들의 일정한 총

체이다. 다진술복합문의 구조적단위로서의 깊이는 복합문구조에서 구별되는 성분화의 준위들의 량이며 성분화의 준위들의 합이다.

성분화의 준위란 낮은 언어단위로부터 높은 단위로 올라가며 분석하는 언어연구방법 수준으로서 진술단위들과 구성성분들사이의 련결관계를 나타내는 구조적도식수준이다.

구조적도식은 문장안에 구체적인 어휘자료로 채워진 다음에 그 어떤 현실에 대한 통보로 되도록 하기 위한 사명을 지닌 가장 작은 추상화된 문장본보기이다. 성분화의 준위는 기본준위와 부차적인 준위로 이루어진다.

다진술복합문에서 구성성분이란 곧 부분을 의미하며 구성성분으로서의 부분은 복합문에서 진술성을 기준으로 구획되는 언어단위로서 각이한 문장류형들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다. 다진술복합문에서는 주부분과 부분 혹은 주진술단위와 부진술단위가 따로 설정되지 않는다.

이밖에도 다진술복합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가능성이 구조—의미적측면에서와 통신적측면에서 최대로 발현되며 여기에서 진술단위들이 변화될수 있고 새 형태의 문장들이 생겨날수 있다.

이것은 다음의 비교를 통하여 알수 있다.

1. Соседка сообщила, что почтальон

①

②

принёс телеграмму, посланную сыном. (복합문)

2. Соседка сообщила, что почтальон

①

②

принёс телеграмму, которую послал сын. (다진술복합문) ③

3. Соседка сообщила не только о том,

①

что почтальон принёс телеграмму,

②

НО И О ТОМ, ЧТО ЕЕ ПОСЛАЛ СЫН.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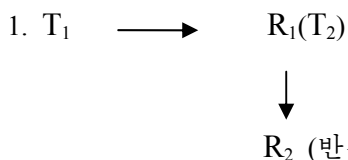
③ (다진술복합문)

첫번째 복합문을 변형시킨 결과 두번째 문장에서는 복잡한 주문부분과 일정한 덩어리로 된 부분부분이 출현하고 성분화의 준위들의 양이 늘어났으며 그중 하나의 꼭같은 준위는 지배적준위로서의 자격을 가지게 되고 문장들의 류형적소속이 변화되었으며 결국 다진술복합문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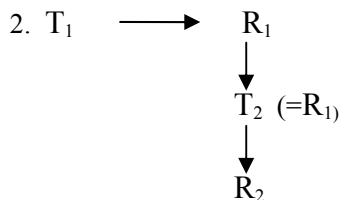
세번째 문장에서 특징적인것은 첫번째 준위(기본준위)에 병렬적연결 및 점층적관계들과 구조적으로 결합된 골격이 있고 두번째 준위(부차적준위)에는 종속적연결과 종속적관계가 있는것이다.

첫번째(출발적) 복합문과 이 문장을 토대로 하여 만들어진 두번째와 세번째 다진술복합문은 구조와 의미, 류형적소속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 즉 첫번째 문장은 두개의 진술부분을 가진 복합문이고 두번째 문장은 순차적 종속을 가진 다진술복합문이며 세번째 문장은 비동종종속을 가진 다진술복합문이다.

우의 문장들을 통신적측면에서 보면 통신적성분화는 같지 않다. 통신적도식들을 통하여 매개 문장의 특성을 직관적으로 보여 준다.



주제부(T_1)인 《Соседка сообщила》와 맞물린것은 설명부인 진술부분(R_1) 《что почтальон принёс телеграмму》인데 이 진술부분에서 문장관계성분인 《телеграмму》는 규정받는 단위뒤에 오면서 문장의 통신적성분화의 두번째 의미적단계를 조직하는 반진술구(형동사구)를 위한 주제부(T_2)의 기능을 수행하고있다. 통신적성분화의 두번째 의미적단계를 갈라낼 필요성이 나서는것은 통신적과제때문이며 진술내용이 구조-의미적으로 복잡해지기때문이다.



두번째 문장에서 첫번째 문장에서와 똑같은 주제부(T_1)인 《Соседка сообщила》는 설명부인 부문장 《что почтальон принёс телеграмму》와 호상관계되어있다. 문장관계성분인 《телеграмму》도 역시 주제부(T_2)의 기능을 수행하고있는데 그러나 여기서는 벌써 첫번째 문장에서와는 달리 설명부의 기능을 하는 부문장인 《которую послал сын》을 위한 주제부로 되어있다. 이 진술부분은 앞에서 언급된 문장에서의 반진술구보다 더 큰 진술적힘을 가지며 자립성도 더 크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문장의 순차적종속을 가진 문장의 구조적도식의 구성부분이기때문이다. 위에서 본 두 문장이 다같이 설명부에서 기원된 주제부(T_2)를 가지는데 이것을 통신적측면에서 본 다진술복합문이 가지는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다.

이와 같이 로어다진술복합문은 단순한 구성성분과 복잡한 구성성분들의 우연한 결합이 아니라 일정한 통신적과제를 실현할 목적으로 말하는 개인이 만들어내는 복잡한 구조적통일체이다.

로어다진술복합문의 문장론적지위를 밝히기 위해서는 언어적단위로서의 다진술복합문과 언어체계의 단위로서의 본문의 의미적단위인 초문장적단위들과의 문장론적관계를 밝혀야 한다.

초문장적단위와 다진술복합문을 대비하려면 다진술복합문에 고유한 속성 즉 다진술복합문의 구조-의미적조직의 기본속성을 밝혀야 한다.

다진술복합문의 구조-의미적조직의 기본속성은 조밀성과 련합이다.

조밀성은 말하는 사람(글쓰는 사람)의 의

도를 실현하고 그것을 파악할수 있게 하며 허용정보량을 수용할수 있게 하는 다진술복합문의 속성이다. 즉 정보내용이 증가할 때 구조적공간의 완전무결성, 명료성, 새로운 진술단위들에 의한 복잡성을 촉진하는 다진술복합문의 구조적조직의 수법과 수단들의 총체이다.

련합은 의미적정보조직과정을 반영하고 진술단위들의 결합결과에 의하여 생기는 문장구조의 많은 구성요소를 가진 다진술복합문의 고유한 가능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속성이다. 이것은 많은 구성요소를 가진 복합문의 구성에서 결합과정에 이루어지는 구성요소들의 조목음이며 복합문을 다면적인 구조로 조직하는 수단으로서의 각이한 련결수법들의 결합성이다.

문장의 각이한 형태와 그의 구성적류형들로 된 다진술복합문의 구조적특성을 리해하는데서 다진술복합문의 구성요소들인 부와 기능상 결합되어있는 부분품들의 묶음문에 대한 개념도 가질 필요가 있다.

부는 단일문의 류형에 따라 구성된 다진술복합문의 토막을 말하며 묶음문은 밀접한 의미적통일을 가지고 각이한 문장론적련결형태(병렬련결, 종속련결, 무접속사련결)들에 기초하여 구성되며 다진술복합문을 이루는 진술단위들이 쌓을 지어 결합된 부들의 묶음이다.

이처럼 다진술복합문은 복합문의 기본핵인 진술단위를 축으로 하면서 이것을 부각시켜 하나의 언어적단위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용량, 깊이, 준위, 부, 성분, 묶음문의 요소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하나의 전일적이고 통일적인 문장론적단위이다.

한편 초문장적단위들은 다진술복합문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양상과 구조-의미적련결로 이루어진 언어적단위들이다.

일반적으로 초문장적단위들로는 문장론

적복합체와 단락, 문장들의 결합단위, 산문구, 문단, 본문 등으로 설정하고있다. 이 단위들가운데서 문장론적복합체와의 대비를 통해 언어체계에서 차지하는 다진술복합문의 지위문제를 보기로 한다.

문장론적복합체는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의미-구조적으로 서로 련결되어있는 둘 또는 몇개의 자립적인 문장들이 하나의 일정한 언어행위의 단위로 이루어진것을 말한다. 언어행위에서 일정한 사상과 감정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은 흔히 한개의 개별적인 문장이 아니라 구조적으로나 의미적으로 서로 통일되어 결합된 몇개의 문장을 요구하고있다.

례: Утро. С гор ласково течёт запах цветов. Только что взошло солнце. На листьях деревьев, на стеблях трав ещё блестит роса.

본문의 한 토막을 이루고있는 이 부분에서 네개의 문장은 자립적인 문장들로 이루어져있다. 여기서 매개 문장들은 비록 그것들이 문법적으로는 완결되었다 하더라도 문맥속에서만 가질수 있는 의미적내용의 구체성, 규정성, 완결성은 가지지 못한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러나 네개의 문장이 모여 하나의 일정한 언어행위의 단위를 이룬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와 같이 다진술복합문은 자기의 전일적결합관계에 의하여 다른 복합문들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보다 큰 결합성을 가지고있으며 본문을 이루는 언어단위들이 가지는 구성적순차성과는 달리 복합문과 본문의 언어적단위인 문장론적복합체사이의 위치를 차지한다.

우리는 로어문장론적단위들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학생들을 강성국가건설에 이바지할수 있는 외국어전문가들로 준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가야 할것이다.